광주문화신협, 미래 주역 15년째 후원 '나눔 선순환' 실천

16기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고교생 26명 선발…대학 졸업까지 지원

누적 장학금 24억…다양한 사회공헌 앞장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제16기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15일 문화신협 첨단본점에서 열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이사장과 김남석 문화신협 이사장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문화신협이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은 지난 15일 광주문화신협 첨단본점에서 '제16기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선발된 고등학생 2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지역 인문·예체능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 대학 입학 이후에는 졸업 시까지 연간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돼 1인당 1천400만원의 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학생들은 월 30만원씩 연간 300만원, 최대 2년간 총 6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의 장래희망은 의사와 수의사, 약사, 물리학자, 반도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목표를 밝히며 지역 미래 인재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광주문화신협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약 10%를 장학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복지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61명의 학생에게 약 24억3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대표 장학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장학생 선발 외에도 김장 나눔과 연탄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변화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는 힘은 사람다운 가치라고 생각한다. 성실함과 배려, 책임감, 함께 살아가는 마음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라며 "여러분 각자는 저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장학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신협이 지속적으로 나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학생들이 성장해 다시 후배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지역사회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 문화신협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26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인재 육성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 선 학생들 역시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문화신협도 앞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1993년 창립 이후 33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총자산은 1조6천5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전국 신협 최초로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태호 기자

"오월 정신 되새기며 지역 대표은행 책임 다짐"

광주은행 임직원 5·18묘지 참배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임원, 본부부서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매년 5월18일을 전후해 임직원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지역의 아픔과 희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해 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이번 참배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ESG 경영 기조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5·18은 광주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 은행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의 미래 발전에 힘이 되는 금융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광주·전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채만 기자

한전, 해상풍력 계통 연계 패러다임 대전환

기후부 등과 해남 해상풍력 업무협약

한국전력(한전)은 17일 "지난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5개사가 참여해 통합설비 구축 비용 분담과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섬이나 해안가에서 직접 서해안 HVDC에 연결해 발전력이 효율적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703㎞ 규모의 전력망 건설 거리가 287㎞까지 약 416㎞ 단축되고,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비도 약 3조6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발전사들이 내륙 변전소까지 장거리 송전선로를 각자 구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변전소와 HVDC 변환소를 통합 구축하고 접속설비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장거리 송전선로와 중복 설비가 줄어들면서 국토 난개발 방지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별접속 대비 계통수용 가능용량과 계통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해남을 시작으로 새만금·고창·고흥·영흥·태안 등 전국 9개 공동접속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투자비 절감뿐만 아니라 전력망 건설 갈등 완화와 환경영향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채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광고문의 : 062)650-2099